

산돌

| 퍼낸이, 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소식	16

“결심”

며칠 전 비가 올 때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분이 저녁 때 비가 온다고 했는데 낮부터 비가 온다고 투덜거리듯이 말을 했다. 비가 오는 것은 맞았는데 시간이 틀렸다고 불평하는 것이었다. 내 느낌으로는 비가 온다는 것을 맞춘 것도 대단한데 시간이 틀렸다고 불평하는 것이 신기했다.

요즘에는 일기예보에서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을 확률로 표시하는데 일기예보를 확률로 발표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 전에는 일기예보가 보통 ‘전국에 걸쳐 곳에 따라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는 식이었다. 그런 일기

예보를 듣다가 ‘서울지역 강수 확률은 30%입니다’라고 하니까 비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느낌이 든다.

요즘에는 수퍼 컴퓨터도 사용하고 인공 위성 등 기상을 관측하는 시설과 장비도 월등해져서 기상예보를 동네별, 시간대별로 실시간으로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 일기예보를 더 많이 참고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일기예보는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것이지 그것을 100% 믿고 따를 수는 없다. 실제로 기상예보의 정확성이 확실히 높아진 것은 3일 이내의 확률이고 3일을 넘어서는 예측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3일

이내의 일기예보가 맞을 확률은 많이 높아졌기는 하지만 몇 시간 후의 날씨라도 100% 맞추지는 못한다.

내 삶에서 내가 무슨 일을 겪을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면 내가 잘 준비해서 내가 결심한 것들을 흔들지 않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일을 정확히 내다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내다본다고 해도 내가 결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내가 결심한 것들을 해내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기로 한 것은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는 항상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목사님 강의, 워크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인지를 배웠다. 바쁘고 피곤한데 어떻게 배운 대로 하느냐고 핑계를 찾기도 하지만 항상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했으니 그렇게 할 뿐이다. 그것이 내 결단을 지키는 방법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좌충우돌 흔들리며 사는 것도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겠지만 내가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것을 지키려면 잘 모르겠어도 배운 대로 할 뿐이다. 이런 저런 일에 흔들리며 살기에는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아깝고 내 시간이 정말 아깝다.





출애굽기	20 : 1 - 21
빌립보서	4 : 8 - 9
마가복음서	12 : 28 - 34

■ 오늘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서의 장면은 율법학자가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예수께 묻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첫째는 이것이다’ 하고 신명기를 인용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으신 주님은 오직 한분이신 주님이시다.” 이 내용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으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마음, 목숨, 뜻, 힘, 이렇게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본문에는 세 가지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목숨은 없고 마음, 뜻, 힘,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를 인용하되 목숨을 하나 더 넣어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다’로 계속 대

답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본문을 인용하여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로 예수님은 대답을 마칩니다.

그 뒤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이렇게 율법학자의 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말 그대로 랍비로 선생님을 말합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평생 율법을 파고 연구하고 끼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 와서 으뜸되는 계명을 묻는 것은 왜일까요? 설마 율법을 몰라서 율법학자가 예수께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와서 물었던 것일까요? 이 장면에서 율법학자가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가 예수께 가장 으뜸되는 계명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어

떻게 보면 될까요? 저는 공부를 끝까지 해보지 않아서 상상력과 간접경험을 동원해야 했지만,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평생을 걸고 연구하고 훈련하던 분야에서 대가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에게 단 한 번의 질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도 그 분야의 대가이긴 하지만 내 앞의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가 평소에 정말 궁금했던 것, 대가를 만났을 때에 던지는 하나의 질문은 그가 평생 가지고 있던 아주 중요한 질문,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요즘에는 공부하는 사람도 적어서 나 외의 대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소위 말하는 ‘내 팔뚝 굵다’ 식의 겨루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디다만, 율법학자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진행시키면 자기 공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의 대답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진행시키고 다음 장면을 다시 읽어 봅시다.

율법학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율법학자가 한 이야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찬성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으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으신 주님’ 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시작하는데, 율법학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으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고쳐 말하고 난 뒤에 율법학자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 하신 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여 말합니다. 주님이라는 말도 없어지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라는 말을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고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쳐 말하는 것은 뒤에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네 마음, 네 목숨, 네 뜻, 네 힘의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율법학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 지혜, 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만 등장하기 때문에 신명기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가 할 수도 있지만, 신명기 본문에는 마음, 뜻, 힘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신명기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생략하거나 덧붙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율법학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로 끝난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다'고 말을 더 붙입니다.

결구는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율법학자의 말은 예수님의 말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거나 사족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뭔가를 배우거나 안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이나 견해를 다시 확인하고 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정말 선생님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여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생각을 확고하게 하고 자기의 말을 견고하게 하고선 떠나간 셈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도 배우지 못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슬기롭다고 하십니다. 소위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 것 많아서 똑똑한 것은 맞습니다. 매우 슬기로운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정도이지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율법학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한다면 율법학자와 같이 슬기롭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와 멀지 않은 정도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런 태도로는 배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가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기 위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기 위한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꼭 하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하면 좋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꼭 하라는 것 중의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되, 주기도만 하라고 가르칩니다. 종교가 여럿인데,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개지만 구체적인 가르침은 따라서 다른 교회입니다. 근본적인 가르침을 같을지라도 몸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가르침은 다릅니다. 우리의 몸이 각자 다르듯, 교회의 몸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우셔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가교회의 가르침을 생략하거나 덧붙이거나 율법학자와 같이 옳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기도하라는 가르침에 여러 가지 내용과 사연이 덧붙여지니 말입니다. 예가교회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라고 가르쳐도 여러 가지 사족이 붙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아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인 말씀입니다. 다른 지혜나 가치나 판단이 껴 들 틈이 없을 만큼 가장 우선 순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기초를 놓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이나 이 땅의 아들로 사는 사람이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삶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람을 빗겨가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아들이나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오는 것에 대처하고 그 말씀으로 바람에 대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헤쳐나가고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도 내가 지친 이유도 내가 힘이 없는 이유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학위를 못 받아서도 아니고, 직장 때문도 아니고, 경제가 나빠서도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이나 이 땅의 아들로 사는 사람이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삶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람을 빗겨가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조건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아들이나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오는 것에 대처하고 그 말씀으로 바람에 대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 말씀으로 풀어나가고 헤쳐나가고 대하는 것입니다.



혈연가족 때문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 밖의 어떤 것도 예가교회 안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예로 들어 봅시다. 사람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도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건강 자체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건강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은데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잘 굴러갈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지향점도 다릅니다. 정체성이 다릅니다.

창조절기가 이제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가을도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예가교회는 율법학자와 같이 슬기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합니다. 율법학자처럼 슬기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합니다. 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해도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가교회가 율법학자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형하거나 덧붙이고 평가하는데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삶의 기초로 놓고, 예가교회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아모 박주은: 달빛님을 좋아하기 위해 달빛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해님에게 감사문자 드리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달빛님에게 브로치를 만들어 전하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모퉁이돌님 가게에 가서 청소를 돕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새롬님에게 반찬을 선물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보라님에게 아침기도 후 말씀으로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화음 김진승: 유유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큰열매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한가온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시원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푸른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불꽃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유랑님에게 감사함을 표현 하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등대님에게 감사사를 전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즐거운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한 조현: 즐거운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감사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마르다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선물을 준비하여 온유님을 만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샘물님과 운동장을 걸으며 사귀를 갖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늘빛님에게 선물을 전하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반찬을 준비하여 샤론님을 만나겠습니다.

샤론 김진수: 사랑한 삶을 준비하여 맑은님과 만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늘빛님과 운동장을 걸으며 사귀를 갖겠습니다.

온유 유형미: 사랑한 삶을 준비하여 나무님을 만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미리내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소망님과 즐거운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빌립님에게 반찬을 선물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찬미님을 대접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광야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전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가족들을 애써서 섬겨주신 바다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좋은님을 대접하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성실님과 즐거운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생명님에게 선물 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생명님에게 감사 선물과 편지를 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생명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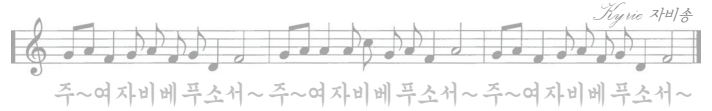
초록 한춘희: 사랑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가족들에게 전할 감사의 편지를 작성하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가족모임에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창조절 아홉째 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40편 5-10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때에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 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첫 기도

주님, 그리스도안에서 나를 새롭게 창조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
해, 오늘을 주셨으니, 이기심과 탐욕에 빠
져 지냈던 어제는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오늘에 집중하여, 사랑하라 하신
삶을 누리게 하소서. 내 것을 퍼주는 사랑
의 기쁨으로 가득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요한1서
1-2/3-4/5-1
2-3/1-3/4-5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
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
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
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
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
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
소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
랑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족과 새 고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 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 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시편찬양

시편 40편 5-10편

소리내어 천천히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때에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밤 기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 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 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첫 기도

주님,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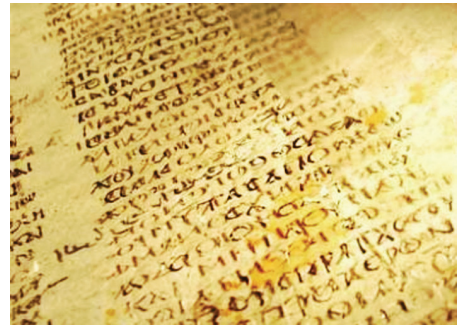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68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30)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바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복음서들이 ‘아버지’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이해했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가르쳤을까?

우선 마가복음 1장을 보면, 1절에서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규정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막1:1)

1장 1절의 헬라어 사본을 직역하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다. 이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절의 문장이 주는 느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 점에서,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은 1장 1절에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못지 않은,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1절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연하여 전하는 대목이 있다. 그 대목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 속에 있다.

“[9]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으로부터 오셔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10]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11]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막1:9-11)

예수님이 세례자(침례자) 요한에게 세례(침례)를 받는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의식을 갖게 된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로서의 자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 자의식은 이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깨달은 자의식,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이루는 핵심내용으로 선포했을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마가복음서 내에 있는가? 이 점에서 마가복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다. 바로 그 내용이 3장에 있다.

“[31]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32]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33]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나?” [34]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자매들이다.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막3:31-35)

본문에서는 두 종류의 예수님과 관련된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다. 첫째는, 혈연관계로 묶인 어머니와 형제들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이 두 종류의 어머니와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후자,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로 선언한다.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혈연관계로부터 끊어내어, 새로운 가족관계로 이끌고 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

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마가복음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같은 자의식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관습화된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은,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이 동반될 때에만 유효한 표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아들’ 3장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11장을 보자.

마가복음에는 주기도는 없지만, 주기도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그것이 바로 11장 25절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막11:25)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 가르치면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11장 25절에 따르면, ‘용서하는 존재’이다. 이는 마태복음 6장이 전하는 주기도가 그 핵심강령을 ‘용서’에 두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일반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 2)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어머니와 형제
- 3) 1번과 2번의 관계를 연결하면, 하나님

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여기에 11장 25절을 더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이 용서하는 삶을 사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여러가지 비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대목과 관련된 주제는 ‘용서’라는 점에서, ‘용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된 주제들 중에서도 핵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용서’의 주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언하는 2장의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비종교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했다. 요한의 선언과 예수님의 선언은 얼핏 보면 비슷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아주 다른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11장 25절이 전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에게서 용서를 받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존재이다. 즉, 하나님에게서 용서를 받는 길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의 선언이나 예수님의 선언이나 ‘용서 받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비슷한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도 아주 다른 것이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 차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자존감이다. 세례자 요한의 선포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즉,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다. 둘째는, 요한은 ‘죄를 용서받는 존재’를 선언했는데 반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존재’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요한의 관심이 죄를 용서받

는 일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달라도 아주 다른 것이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의 길과 예수님의 길은 같은 길이라 할 수 없다. 질적으로 아주 다른 길이다. 세례자 요한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로서는 좋은 길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길이다. 문서예언자들의 시조인 아모스, 호세아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거쳐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소원한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암미)이라 부르는 삶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백성’이라는 비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가르친 적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선언했을 뿐이다. 바로 이 지점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의 전통과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려운 지점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 즉 신적 생명의 첫 열매로 선언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누린 첫 사례였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불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누렸으며, 또한 선포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기독교는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전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다. 그래서 틀린 것이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른 종교가 되어 버린 것이다. 프랭크 바이올라가 ‘이교에 물든 기독교’(pagan christianity)라는 책을 써서,



오늘날 기독교는 성경이 전하는 그 기독교가 아니라고 일침을 놓는 정도로 정리될 수준이 아니다. 매우 아쉽게도 그 대단한 '이 교에 물든 기독교'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난다.

이슬람교가 마호메트를 예수님의 뒤를 이은 마지막 예언자로 규정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예수님을 예언자 전통의 마지막이자 완성자로 본다.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유대교의 연장선에서 자기들의 종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처럼 불연속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자존감이 달라서이다. 정체성이 달라서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유한 것이 아니라 공유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과 공유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혼자서 독식한 메시지를 오늘날 복음이랍시고 전하고 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뒤덮는 비전을 전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을 걷어찬 것이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바울의 서신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핵심으로 독해하는 이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바울의 서신들은 예수님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하는 데, 더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판국이다.

오늘날에는 '성경적 기독교'를 주장하는 것이 무슨 유행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 '사영리적 기독교'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 '성경적 기독교'를 주창하는 어떤 이들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으로 전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바울,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첫 교회들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전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존재'를 전했으나,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죄를 용서받는 존재'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영'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 '마음의 평안을 주는 영'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바울이 받은 성령과 우리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령의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영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가는 길이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버릇처럼 기도 중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긴 한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부르는 호칭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인가? '아버지'라고 부르던 기도의 말씀관이 불편했는지, 요즘에는 '주여'로 많이 바뀌어 가는 추세이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되어 있는데, 누가 바울의 서신이나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버지'라는 표현이 생선가치처럼 걸리거나, 놀랍거나, 충격적이거나 하겠는가?

이제는 교리를 배제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되었다. 심지어는 성경이 새로운 버전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교리에 물든 표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의역되어 들어오는 판이다. 교리에 물든 번역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어가면서, 앞으로 종종 확인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서신은 물론이고, 복음서의 첫 기록인 마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들은 어떻게?

먼저 마태복음을 살펴보자. 마태복음의 경우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보다 더 많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작한다. 마태복음의 경우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소개된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얼핏 보면 혈통 계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혈통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계보이다. 게다가, 마태복음의 저자 자신도 혈통적 족보를 기술하는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 증거 중 하나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의 혈통을 잉태한 것이 아님을 알고 파혼하려고 했다고 전하지 않던가?

마태복음의 계보 이야기는 따로 마태복음을 자세히 독해해 보아야 하는 일이니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넣었는데, 그 탄생 이야기의 요지는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에 의한 탄생이라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1장과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갑자기 3장에서 청년 예수가 되어서 등장한다. 마태복음이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룬 의도가 따로 연구해 봐야 짐작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관심은 3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다.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일을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3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종종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는 사건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이다.

마태복음은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긴 내용의 가르침, 흔히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장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자존감이다. 산상수훈의 중심에는 주기도라는 기도가 놓여 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의 기도이다. 예수님은 주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인가를 가르치신 것이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제자인지 무리인지가 불분명한데 반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주어진 가르침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마5:1)

마태복음 4장의 끝에선, 이스라엘의 사방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무리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는 마치, 모세가 백

성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가 계명을 받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모세의 이야기에서는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고, 모세를 따라 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다. 모세를 따라 올라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오른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제자들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온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계명들을 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인데, 그 내용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르침이다. 즉, 산상수훈을 통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을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명시적으로 ‘제자’라 부르고 있다. 즉, 마태복음에 따르면,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며, 그의 정체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톨릭은 마태복음이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를 구분한 것을 가지고, 이중직제의 근거로 삼는다. 즉, 사제와 평신도를 구별하는 근거로 사용한 것이다. 마태복음을 가지고 교회의 교권을 세우는 근거를 삼은 것이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근거로 교회의 직제를 논하려면, 사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주제로 하는데, 그 중심에는 주기도가 놓여 있고, 주기도의 중심에는 ‘용서’라는

주제가 핵심주제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마가복음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재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설정할 때에는, ‘용서’가 그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상수훈이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그 핵심은 ‘용서’라는 것이다. 용서는 기본적으로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제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의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 꾸어서 먹는데,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꾸어준다. 그리고, 꾸은 사람이 갚을 길이 없으면, 꾸어준 사람은 탕감해 준다. 사람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가 존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로 유비되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성실가족

바다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바다님의 건강을 위해 굴 한 박스를 선물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비타민C와 간식으로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님이 준비한 해물탕 파티에서 사귀를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광야님이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을 통해 밝은 모습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야님이 혼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물했다, 성실님에게 시골에서 올라온 단감이 있어서 선물을 했다, 식구들과 맛있게 먹을 성실님을 생각하니 참 좋다, 좋은님이 운동하고 먹으면 살찌기 딱 좋을 빵들을 골라 예쁜 상자에 담아 선물했다, 흐뭇하게 골라 감사함으로 전하려던 마음을 잊어버리고서 다른 일에 묻혀 건성으로 전했다, 다음부터는 선물을 전할 때에도 정성으로 전하겠다, 아침 기도 후 좋은님에게 반가워하며 안부인사와 감사를 전했다, 표현을 할수록 좋은님이 더 좋아진 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지난 주부터 '에게이로'의 여러 용례를 들어 부활, 회개까지 배웠다, 일어나 깨어 기도하고 어두워질 때마다

돌이켜 기쁘게 살겠다, 그 기쁨을 예가락 여러분에게 감사 문자로 전하겠다, 매일 밤 편안히 잠들었다가 아침에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 주님의 선물인 새 가족을 더 좋아하고 섬기며 살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포도가족

달빛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새롬님을 좋아하기 위해 현미와 지방분해에 도움이 되는 가루녹차를 선물했다, 새롬님을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하면서 기분이 좋았고, 일대일 만남도 더 반가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모통이돌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감기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국을 선물했다, 모통이돌님을 더 좋아하게 되어 좋았다, 마리아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브로치를 만들어 선물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번역이 '일으키지는 것'이란 수동태임을 알게 되었다, 내게 성령이 임해야만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깨어나 섬기는 몸이 되겠다,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사건은 주관적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180도로 바뀌었다, 기도를 통해 나를 바꿔야겠다, 신발들을 신발장에 넣어 정리하겠다, 에스더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다, 하마(양동엽)님과 요셉(홍진표)님에게 격려 카드와 간식을 선물하겠다, 초아(이다은)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다, 식탁가족의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사랑가족

생명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뿌리님을 좋아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자 뮤지컬을 뿌리부부와 함께 관람하였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준비를 못하는 것을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허락해줘서 고맙웠다, 사랑님과 미술관 나들이로 즐거운 사귀의 시간을 가졌다, 멋진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였는데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사랑님을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기분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직접 보지 못했다,

하지만 바울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의 삶이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화음가족

신나님 집에서 조영희목사님과 함께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푸른님을 좋아해서 푸른님에게 선물할 립스틱을 샀는데 어울리는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교환하기로 하면서 푸른님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화음님이 연주회를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는 동안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선물하였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유유님에게 고양이 이모티콘을 선물했다, 신나님을 좋아해서 주문한 땅콩을 볶아서 잣과 꿀과 함께 영양간식을 만들어 선물했다,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가퀴즈를 내는 큰열매님에게 감사하였다, 대구탕을 끓여 먹을 때 한가온님이 생각나서 멸치 육수를 내어 대구와 모시조개를 함께 선물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늘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겠다, 부활이라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도 쓴 적이 없는 번역상의 조어라는 것을 새롭

게 배웠다, 부활은 누워 있던 사람이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으켜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읽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내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요셉님과 하마님에게 격려 인사를 하겠다, 샤론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많은가족

샤론님 집에서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샤론님과 만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살리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나누며 즐거웠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았다, 나무를 저녁에 찾아가 5주기 동안 사랑한 것과 잘못을 고백하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좋았다, 피곤했는데 만나고 나니 오히려 에너지를 얻어 기쁘고 감사했다, 윤유님과 사랑한 이야기를 나누며 5주기를 함께 해서 더 좋아하는 마음이 커진 것을 발견하고 감사했다, 샘물님이 운전하는데 졸음을 방지하는 귀걸이 형 도구와 패드를 사서 선물했다, 오랜만에 바깥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어 행복했다, 이번 주일 연경반 내용을 나누고 선물하며 마음이 훈훈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도, 바울도 쓴 적이 없는 번역과정에서 만들어진 단

어이고, 일어남, 깨어남의 의미이다, 누가 잡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3번의 바울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능시험 보는 요셉님과 하마님에게 선물하고, 식사대접하며 격려하겠다, 연경반 총무에게 선물을 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드림가족

소망님 집에서 5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에스더님과 남산을 함께 걸어가며 지리산 산행 계획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대일 만남을 먼저 갖고 믿음으로 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6주기에는 믿음으로 더 잘 살기를 다짐했다, 은석님과 야사시에서 만나 대접해 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5주기 동안 가족과 즐겁게 살고 더 좋아진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가족이 호흡기도 평균이 주 6회를 처음으로 한 기쁨도 나누었다, 6주기 '축제의 방' 방장으로 가족을 섬기고 활동하실 은석님을 기대하며 유쾌한 사귀를 가졌다, 어울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어울님과 이메일로 만남을 하고, 선물을 보냈다, 멀리 있어도 항상 가까운 느낌이 드는 어울님을 더 좋아하는 한 주였다, 건조한 날

씨에 도움이 되는 아이크림을 소망님에게 선물로 준비했다, 소망님과 같이 남산산책을 하고 같이 식사해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마가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 일으켜지는 사람들이 매 장마다 등장하고 있다, 부활은 섬기는 삶을 사신 예수님을 통해 일으켜지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 생각했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겠다, 바울의 부활이 자신만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읽으며 나에게도 부활이 나만의 경험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고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소식가족

희은님 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늘 밝은 표정으로 소식 가족의 분위기 메이커로 가족들을 기쁘게 해 주는 희은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스카프를 선물했다, 희은님에게 잘 어울릴까를 생각하며 기뻐다, 희은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은님과 만남을 며칠 전부터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좋았다, 믿음의 사귀를 하면서 소식가족으로 함께 사는, 그리고 가족들의 존재 자체에 기쁨과 감사를 느낀 한 주였다, 즐거운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감사의 말과 선물을 준비했

다, 준비하는 시간이 참 기쁘고 감사했다, 여름 수련회 때 즐거운님 차를 타고 기면서 보낸 시간들이 생각나 차량용 선물을 드렸다,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한 작은 행동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말씀을 주고 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 즐거운님이 더 멋지고 사랑스럽다, 카라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 감사 메시지를 준비하였다, 즐거운님에게 모기향을 선물했다, 이 모기향으로 즐거운님이 모기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한 밤을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선물을 준비하며 즐거운님이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예수님은 사랑하는 삶을 전하셨고 나는 예수님이 전한 내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하며 살겠다, 창조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듣고, 호흡기도와 주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하루하루를 살겠다, 달리기 대회에서 일등을 한 바램(정찬희)에게 선물을 하겠다, 초등부 학생들 간식을 사주겠다, 예가락에 감사표현을 하겠다, 성찬 준비 가족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다, 식탁가족 간식을 준비하겠다”고 느낌과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시간 '카이로스'

맑은가족 맑은 최영란



나의 올해 가족스토리 캐릭터는 어떠한 시간도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내고, 가족을 좋아하는 '카이로스'이다. 올해 스토리는 예가국의 롤링스톤에게 사랑하는 능력을 전수받고, 사랑하는 실력을 키우는 신들로 살며, 각자의 고향 행성에 가서 이블리온의 노예로 있는 절친을 구출하기이다. '열정, 친절성, 끈기'라는 성격 강점을 사용하고, 강화하며, 스토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내 삶을 기분 좋게 하는지를 알고, 누리는 한 해로 살아보기로 했다.

사랑하는 시간을 만드는데 오투기처럼 일어나는 '카이로스'로 살기로 했기에, 성경 읽고, 아침기도하며 내가 실천할 성경구절을 찾아, 나의 다짐과 감사, 격려를 담은 문자를 가족들에게 보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져서 참 좋다. 많이 바빠서 아침 일찍 서둘러 나가야 할 때, 가족들에게 문자 보내는 것을 생략하면 꿀꿀한 마음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밝게 살기 위해 아침시간을 꼭 확보하고, 안되면 지하철 안에서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며 문안 문자를 했다.

가족이나 인도자, 교우에게 문자를 하다 보면, 좋게 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부정적이고 게으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어느새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그래서 아침기도 시간이 제일 좋다. 찌뿌둥한 몸과 꿀꿀한 마음

이 사라지고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나는 '카이로스'라는 나의 캐릭터가 참 좋다. 이 이름 덕분에 사람을 좋아하는 선택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 이 이름은 긍정적으로 보고, 말하는, 결단의 시간으로 바꾸어내는 능력을 키우게 한다. 힘든 시간이든, 행복한 시간이든, 어려운 시간이든, 그 시간을 좋게 만들어내는 '카이로스'.

우리 가족들도 모두 '~신'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서, 나, '카이로스'는 가족들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름이기에 더 좋다. 그 절정은 '여름 수련회'였다. 6명이 하나에서 열까지 준비하여 간 인천 '무의도(신들의 힐케이트)' 준비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말이 오갈 때, 스토리와 캐릭터대로 실천할 계획을 세우자고 격려하였다. 타임 스케줄을 짜면서, 좋은 것을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니, 우선 나부터 좋은 마음이 가득 찼다. 게임으로 그림이 5개이면 벨을 누르는 '할리갈리'를 하며, 모두들 까르르 웃는다. 무엇을 해도 재미있어하는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다. 수련회를 갔을 때 답사까지 한 숙박시설이 너무나 열악해서 내가 더 놀라 눈앞이 아득해졌다.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려는 나의 입을 막고 있는데, 가족

들이 좋은 점을 말하여, 나는 '급' 생각을 바꾸어먹었다. 그렇게 꿈결같이 수련회를 보냈다. 5주기에는 '아테나신'이 합류하여, 7명이 믿음의 사귀를 가지기로 결단하였다. 가족모임 애프터 시간에 아테나신과도 할리갈리 게임을 했다. 아테나는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였다.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면, 간식, 반찬, 불고기, 돼지불백을 준비했다. 식사대접을 하기도 했다. 준비하면서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았다.

올해는 모두 장소준비자가 되어 식사준비하고, 장소준비를 하며, 섬기는 주간에는 모든 가족들과 일대일 만남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에 힘썼다. 장소준비자가 된 주기에는 온전히 가족을 좋아하는 일들을 더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모두 기쁘고 감사한 부분이 크다고 고백하였다.

6주기에는 내가 섬기는 주기이다. 가족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며, 호흡기도에 집중하고, 한 해 동안 감사한 부분들을 적어서, 표현하며, 더 좋아하는 시간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가 가족을 좋아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인물열전

유카이 이정안

10월의 주인공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유카이 이정안님입니다. 요즘 멋지게 폭풍성장하고 있는 유카이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 '유카이'라는 새 이름은 누가 지었고, 어떤 의미가 있나요?

초등부 때는 '사이다'였다가 학생부로 올라오면서 이름을 바꿀 기회가 생겨서 형님들과 같이 '유쾌'로 지었는데, 발음이 '유크회'로 들려 어른들의 추천으로 같은 뜻의 일본어인 '유카이'로 짓게 되었어요.

2. 초등부로 살았던 작년과 학생부로 사는 지금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생부는 팔빙수 대접하기, 뽕뽕로 대접하기 등 활동들이 많아서 좋아요. 초등부 때는 받아 먹기만 하다가 학생부에서는 직접 만들어 대접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3. 학생부에서 올라와서 성찬대접을 해보았는데 잘 하는 요리가 있나요?

달걀말이는 성찬대접할 때 두 번이나 해보아서 자신 있어요. 요리를 좋아해서 집에서 라면조합이나 불닭볶음면 위에 달걀을 덮고 치즈를 뿌려 오무라이스처럼 멋지게 만들어서 먹어요.

4. 대기명당으로 살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그 전에는 영어를 전혀 몰라서 답답했었는데, 영어를 배워서 좋아요. 아직은 어려워 위크샵에서 배운 영어학습법으로는 공부하기 힘들지만 학교에서는 영어수업이 가장 재미있어요. 그리고 형님들과 친해져

서 좋아요. 특히, 온새미로(양동우)형은 제 멘토라서 그런지 잘 놀아주고, 스케줄 작성법과 영어도 가르쳐주고, 대기명당 규율 등을 알려주면서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 더 친해졌어요. 또 용돈 받는 것도 좋고, 캄보디아 여행이 재미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팬케이크에 바나나, 달걀, 초콜릿을 얹은 길거리 음식인 로띠가 엄청 맛있어요. 여행 중에 다들 배탈이 나서 힘들었는데, 고백(유지호)형과 저만 괜찮았어요. 내년에는 불탑이 많은 미얀마로 여행을 가요. 형님들과 함께 하면 뭘 해도 좋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어요.

5. 집에서의 가족대화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주일 8시에 모이고, 한 주간 좋았던 것과 안 좋았던 것을 발표하고, 공지사항 나누고, 보드게임 같은 것을 하고 마쳐요.

6.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아서 학교생활은 즐거워요. 영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예쁘고 잘 해 주셔서 영어시간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오늘 학교를 못 갔어요.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아파다가 낮에도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전염성 눈병이래요. 학교에서는 다 나를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학교에서 노는 것이 더 좋아요.

7.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과 영화는 무엇인가요?

아이작 싱어의 '행복한 바보들이 사는 마을, 켈름'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온 마을을 뒤덮은 눈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자, 장로들은 이 보석을 밟지 못하도록 산책을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을 문 밖에 나오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알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다 밟을 것이란 생각이 들자 그 사람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네 명이 듣고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결국은 그 식탁을 들고 다닌 네 사람이 눈발을 모두 밟아서 망한 이야기에요. 한번 읽어 보세요.

부자할아버지가 인턴으로 여자사장이 운영하는 옷 파는 곳에서 즐겁게 일하는 내용의 '인턴'이라는 영화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촬영한 '돌연변이'는 보고 싶은 영화예요.

9.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읽는 교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주일마다 맛있는 밥을 주시는 교우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학생부의 막내답게 인터뷰를 마치고 나자 벌떡 일어나 '잘 먹었습니다'라고 꾸벅 인사하는 유카이님과 여러분도 유쾌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가 소식 & 공지

1. 오늘은 반가운주일입니다. 창조절기로 지내는 한 주간 동안 주기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형제를 향하여 '참 좋다'고 선언하며, 좋아하고 잘하는 삶으로 내가 새롭게 창조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2.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며, 국악이 포함된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국악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은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예배 후, 사랑의 식탁 전에 있습니다. 또한, 각 가족모임과 부서모임에서는 한 해 동안의 삶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감사찬양, 감사헌금을 준비합니다.

3. 주일 연경반은 주일 저녁 7시,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일연경반은 11월 8일 모임 후 휴회하고, 추후 공지를 통해 다시 개설합니다. 주일연경반 강의는 주일저녁에 자료실에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4. STS(Searching The Scriptures) 하반기 강의를 자료실에 모두 업로드하였으니,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을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목요기도회는 이번 주에만 밤 9시에 예배실에서 갖습니다.

6. 2015년 크리스마스는 한 해 동안 사귀어 가진 이들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성

탄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갖습니다. 칸타타예배는 가족모임과 부서별 발표회로 대체하여 갖습니다.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발표준비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만찬을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잔치와 선물나누기, 0시 예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진행합니다.

7. 호흡기도를 매일 합시다. 호흡기도는 주기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호흡기도에 힘써서 예수님이 누리신 자존감을 가지고, 통 크고 당당하고 밝은 삶,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교회로 살시다.

8. 초등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주에서 가을여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새누리교회 당에서 1박을 하였으며, 새누리교우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린 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9.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맑은, 나무님입니다. 예배위원은 한 주간 동안 형제를 좋아하고, 형제에게 잘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하기 바랍니다. 성찬대접은 맑은 가족입니다. 11월 봉헌위원은 바다님입니다.

날짜 성경읽기

월	호세아서 1장 ~ 호세아서 9장
화	호세아서 10장 ~ 요엘서 2장
수	요엘서 3장 ~ 아모스서 6장
목	아모스서 7장 ~ 요나서 4장
금	미가서 1장 ~ 미가서 7장
토	나훔서 1장 ~ 스바냐서 3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